



전주 중앙신용협동조합,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전주 중앙신용협동조합(이사장 한경희)은 12일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 중앙동주민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중앙동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화정초교, 모내기·채소 수확 체험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지난 4월까지 도내 40개 초등 학교에 농업 체험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전주화정초등학교(교장 장미옥) 스포츠파 체험장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와 채소 수확 체험을 했다. 이번 체험에서 학생들은 조별로 친구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눈을 대신한 비상자를 활용해 양쪽 끝에서 못줄을 잡고 모를 직접 심었으며, 오이·고추·상추 등을 수확하며 즐거워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금지면, 냉해입은 고령농가 지원

남원시 금지면은 지난 1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촌 영농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농가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지원에는 시청 농촌활력 및 면 직원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 저온으로 냉해 피해가 많은 고령 포도 농가를 찾아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받은 농가는 "냉해 피해로 마음이 무겁고 힘 들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도움주어 더욱 힘이 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남이 금지면장은 "앞으로도 남원 농산물을 홍보하는 다양한 채널과 고령 농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교육부 지원 받아 해외 대학으로”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의 최유진 대학원생, 박민욱 박사 국외연수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과)의 최유진 대학원생과 박민욱 박사가 올해 이공 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진 연구자의 연구활동 유지·연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광운 교수팀 연구원들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 수행한다.



최유진



박민욱

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 9편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했고, 33편의 SCI논문 발표에 참여한 등 차세대 광학 분야 연구를 이끌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대학원생은 올 8월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재료공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유진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동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박사지원펠로우십사업(2016-2019년)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 나노기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인 차세대 광학필름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세계적 저널인 '어드밴스드 펌셔널 머터리얼스'에 논문이 실렸다.

최유진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동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박사지원펠로우십사업(2016-2019년)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 나노기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인 차세대 광학필름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세계적 저널인 '어드밴스드 펌셔널 머터리얼스'에 논문이 실렸다.

한편 선정된 박민욱 박사는 전북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ACS Nano'를 비롯해 25편의 SCI논문을 발표했다. 올 초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잉크를 개발해 이목을 끌었으며, 지난해엔 전북대 최우수 박사 학위논문 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박사 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완주자봉센터-인익스, 주거환경개선 위한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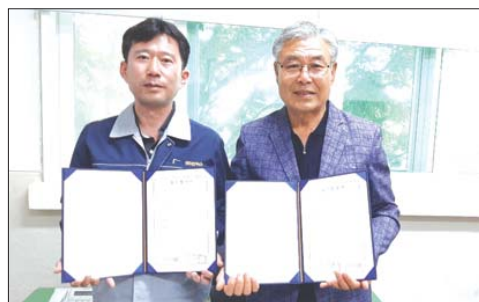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지난 12일 (주)인익스(대표 문종배)와 완주군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따른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주)인익스는 완주군의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보수가 필요한 취약주택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맞춤형 방충망을 지원하고, 직접 방문해 설치해 주기로 했다.

(주)인익스는 블랑총량과 건조대 및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써 2018. 8월에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제2공장(중부지사)을 설립하였으며, 해외(베트남)에도 지사를 운영하며 최고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인익스 대표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가정에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 김영석 이사장은 "다양한 기



업봉사단의 활동이 있지만, (주)인익스와의 인연으로 더불어 살기좋은 완주를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알림

제4회 전국트로트가요제

- ▲일시: 6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풍남문화광장(풍남문 옆 특별야외무대)
-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 성인 남녀 누구나 가능
- ▲신청문의: 063-231-6669
- *메일: yangokkim@hanmail.net
- ▲접수마감: 6월 19일(금)



농협 남원시지부, 관내 농·축협과 농가 일손 지원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와 관내 농·축협은 지난 12일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급기엔 포도농가에서 일손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영농철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농촌인력 부족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의 기본정신인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정성으로 작업에 힘을 모았다.

이날 임직원들은 포도봉지 싸우기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농지 주변의 빈농약병 및 폐비닐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부족한 농가의 일손에 보탬이 되고자 힘썼다.

박노현 지부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현상은 예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의 동행을 통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정회, 인후동 11번째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전주지역 봉사단체가 장마철을 앞두고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돕고 나섰다.

우정회(회장 목희상) 회원 30여 명은 14일 인후3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인후동에 거주하는 홀로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2020 드림하우스 제11호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도배 △장판 교체 △베란다 천장보수 △화장실 누수 정비 △싱크대 교체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우정회는 향후에도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주민센터와 주거복지네트워크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제12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우정회는 지난 2017년부터 집수리 봉사와 함께 국수 및 음식을 대접하는 마을 어울림 잔치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수리 봉사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전주매일신문사 완주구 기린대로 228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6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555	진안지사 433-3064
효진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전 전북본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장비구니 전달' 사회공헌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랑나눔 친환경 장비구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본부는 관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매일 1회 「전통시장 장비구」 행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모래내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장비구니를 2,000개 전달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전주남부시장 상인회 회장(하현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비구니 나눔행사를 해준 한전 전북본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전 전북본부 이경섭 본부장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숭선수범해 자매결연 전통시장이 쾌적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